

# 죄수와 변호인이 위성 對話

한때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의 주인공인 악명 높은 유나 봄버(불특정다수를 무차별 공격하는 폭파범) 세오도어 카진스키는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 플로렌스의 미 연방특별교도소에 갇혀있다. 그는 독방에서 지내면서 하루에 한시간만 밖의 고립된 마당에서 운동이 허용된다.

수형자에 대한 식사는 손수레에 실려 감방의 문구멍을 통해 배식되고 수형자가 볼 수 있는 인간이라고는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교도관 뿐이다. 20년 전만 해도 가장 죄질이 나쁜 흉악범만 이런 격리 생활을 했으나 오늘날 미국의 42개주가 인건비를 줄이고 폭력의 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갖춘 이런 특별교도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들의 유일한 인간 접촉이 이웃 감방의 수형자와 벽을 두드리는 방법 밖에 없을 때 그들이 지녔던 사회적 기능은 차츰 차츰 퇴화하고 게을러져서 마침내 재범의 씨를 심게 된다는 의견이 머리를 들고 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미국의 교정 당국도 수형자간의 보다 많은 인간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수형자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사라지는 유인 감시탑

다행히 전자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첨단기술이 그 해결책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해결방법을 통해 미래의 교도업무를 앞당겨 그려 볼 수 있다. 그 중의 한가지 해결방법은 수형자들에게 외부세계와의 가상의 접촉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수형자가 인공 위성을 통해 자기의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는 비디오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또 다른 주와 더불어 일부 연방교도소에 원격의료진찰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교도소 의사가 청진기와 심전도로 환자를 진찰한 뒤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먼 곳의 전문의에게 보내면 전문의는 이것을 검토한 뒤 진단서를 반송하게 된다. 이런 방법은 수형자를 전문병원으로 호송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비용도 훨씬 덜 든다.

새로운 전자기술은 교도소 내의

가장 위험하되 일상적인 업무를 많이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미국에서 신축된 몇몇 교도소는 스마트 시야장치(視野裝置)를 사용하여 유인 감시탑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대신 전자센서가 철조망 장애물의 응력(應力)을 감시하고 지진계가 울타리의 미심쩍은 흔들림을 탐지하여 극초단파 빔이 울타리 사이의 빈터의 동태를 포착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오는 신호는 알람을 울리고 감시카메라를 해당장소로 돌리는가 하면 경비실과 순찰차의 경보를 발동시킨다. 또 수형자들의 전화통화에서 '탈옥'과 관련되는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를 전자적으로 탐색하는 음성인식시스템은 종래의 감청(監聽) 방법과 대치된다.

한편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는 서비스 차량이 교도소에서 나갈 때 차량에 탄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세어 사람이 차량을 검색하는 필요성을 줄이는 소리탐지기를 개발했다. 이 탐지기는 수년 전 4명의 수형자가 트럭 속에 감춰진 칸막이에 숨어 탈출한 일이 있는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 리버랜드 연방특별교도소를 포함하여 여러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

**죄수와 교도소 직원이 ID를 전송하는 팔찌를 차면  
교도소 내 수신기는 팔찌가 보내오는 신호를 잡아  
컴퓨터에 중계해 컴퓨터 디스플레이가 모든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  
교도관 한사람이 죄수 수천명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사법당국자들은 특히 수형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발한 장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주의 교도소에서는 모토롤라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시험중인데 이 시스템에서는 수형자와 교도소 직원들이 개인의 무선 ID(신분증명)를 전송하는 팔찌를 각각 찬다. 교도소 내의 수신기들은 팔찌가 보내오는 신호를 잡아 컴퓨터에 중계하면 컴퓨터 디스플레이는 교도소 내의 모든 사람의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 준다. 그것은 마치 비디오게임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교도소 지도에서 수형자 한사람 한사람은 빨간 점 그리고 교도소 직원들은 각각 파란 점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모니터하는 교도관 한사람이 수천명의 수형자들을 감시할 수 있다. 이 컴퓨터는 또 위험한 수형자가 자기 구역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본래의 위치를 벗어날 때 교도관에게 경고할 수 있다. 또 서로 미워하는 두사람의 수형자들을 추적하여 이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해당 검문소에 접근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다. 이 컴퓨터는 또 수형자 한사람 한사람의 동태

를 기록하여 이들의 공격이나 다른 범죄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형자들이 부당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교도관들도 자기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 GPS의 도움

무선 ID는 교도소 내의 동태를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일부의 교도소는 손바닥의 무늬와 지문, 눈의 홍채(虹彩), 음성 또는 얼굴의 패턴을 읽는 디지털 스캐너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수형자와 교도소 직원은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디지털 스캐너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교도소 컴퓨터는 언제나 이들의 위치를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인간화된 기술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도와 수형자들이 집단 속에 남아 있으면서 보다 많은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사회적 상호접촉의 기회를 누리면서 독방감금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중국적으로 하이테크를 원용하는 이런 해결책은 교도업무의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나 건

설, 시설, 훈련 등의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

아무튼 새로운 기술은 교도소를 고립에서 융합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전직 교도소장이며 현재 워싱턴 소재 미국 사법연구소 초빙과학자인 앨런 터너는 교도업무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런 추적과 감시시스템은 교도소의 담 밖에서도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수형자들은 가석방된 뒤에도 GPS(전지구위치확인시스템) 수신장치와 무선송신장치를 갖춘 팔찌를 계속 차고 다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성 범죄자에게 사법당국은 집으로 돌아가서 취업도 할 수 있지만 당국은 언제나 그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타 이른다. 그래서 그가 행락지나 유흥가로 가는 경우 알람이 울리고 순찰대가 데려간다는 것도 알려준다. 미래의 세계에서는 하이테크장치들이 자유에 대한 수형자의 권리와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의 권리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7

(春堂人)